

광주시, 시민 '아주 보통의 하루' 위한 정책 편다

전세대 할인·환급 '광주G-패스' 1월 시행 어르신 콜택시·대각선 횡단보도 등 지원 임신부 가사·입원아동·손자녀 돌보미도 주말·휴일 시청 잔디광장 등 예식공간 개방

광주시는 2025년 시민의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위한 '쏟아진 정책' 들을 선보인다.

'아보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의 신조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는 광주G-패스(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도입,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어르신 전용콜택시 운영, 시청사 예식공간 개방, 임신부 가사돌봄, 손자녀가족돌보미, 시민안전보험,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 광주전변 계절꽃 산책로 조성 등을 실시한다. 모두 시민들에게 소소한 행복과 힐링을 위한 정책들이다.

전 세대 빈틈없이 할인·환급해주는 '광주G-패스'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야말로 시민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준다. 광주지역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어르신과 저소득층은 기존 K-패스 환급과 광주G-패스 추가할인을 더해 각각 50%, 64% 할인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대각선 횡단보도'는 올해 25개소에 확대 설치한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시간을 단축시키고, 보행신호 때 차량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교통안전과 편의를 제공한다. 올해는 보행이동이 많은 상무지구 등 상업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의 기존 횡단보도를 대각선 형태로 변경한다.

광주시에 또 올해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시청 잔디광장, 장미공원, 1층 시민홀 등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한다. 고비용의 정형화된 실내 결혼식에서 벗어나 도심 속 스물웨딩·아외웨딩으로 나만의 차별화된 공간에서 예식을 치를 수 있어 실용적인 결혼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전변에서는 유채꽃과 코스모스가 흐드러진 산책로를 만나볼 수 있다. 유촌교-발산교 4km 구간에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유채를 파종한데 이어 올해 6월 코스모스를 파종해 올 봄과 가을 계절꽃 산책로가 조성된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삶을 위한 정책들도 눈길을 끈다.

디지털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어르신 전용 콜택시'가 눈에 띈다.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어

르신 누구나 전화(062-525-5555) 한 통이면 간편히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는 무료이며, 목적지까지 이동한 택시 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택시 요금이 5300원 미만일 경우 호출료(최대 1000원)가 발생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지기 활동가들과 고독사 위험군을 1대 2로 매칭, 주 1회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구미리를 지원하는 등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여기에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를 당한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올해 △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사망(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후유장애(1000만원)를 추가해 13개 항목으로 늘렸다.

지역청년들이 안전하게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광주시의 선도적 양육정책으로 꼽히는 '초등학교 10시 출근제'의 경우 초등 학부모 근로자의 자녀 돌봄 고충 해소를 위해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장에 장려금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500건을 지원한다.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는 광주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청소·정

리정돈 등 가사를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해준다.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다자녀가정의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광주시 대표 틈새돌봄 사업이다. '입원 아동 돌봄서비스'는 입원한 아동 간병(투약)과 종합돌봄(책 읽어 주기, 놀이·정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당 연 200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1만4000원(소득에 따라 10~50% 본인부담 차등)의 부담금이 있다.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은 100인 미만 중소기업장에 근무하는 임산부의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문화 활성화와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보장을 위해 사업장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빛나는 따뜻한 패키지 지원 사업'은 임신부 체형에 맞춰 접이조절이 가능한 임신부 전용의자 무료 대여, 전자파방지담요·손목보호대 등 따뜻한 직장생활 꾸러미 제공, 출산·육아휴직 등 모·부성 노무상담 등을 지원한다.

박광석 대변인은 "알아두면 쓸쓸한 광주시 정책들이 많다"며 "시민들에게 소소한 행복과 힐링을 주는 정책들이 대한민국 대표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발굴과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도, 지역사랑상품권 선제 발행 소비 촉진

2222억...전년 동기대비 1.3배 ↑ 발행금액 소진시 시·군 추가발행

전남도는 지난 20일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량이 2222억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 동기 대비 1.3배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량은 1743억원이었으나 올해는 20일 기준 2222억원 어치가 판매되는 등 증가했다.

이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소비 촉진 정책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도는 대내외 상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시군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3500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선제적으로 발행했다.

할인율은 1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실질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선제적으로 발행한 3500억원이 소진되면 시군에서 추가로 518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실제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한 시민들은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데 지역사랑상품권 덕분에 할인 혜택을 받아 장보기에 큰 도움이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오지현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광주분향소 종료

광주시, 유가족 대표와 협의 21일 합동참배로 마지막 인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1일 전일빌딩245 합동분향소에서 마지막 합동참배를 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희생자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전일빌딩245 1층에 마련한 광주 합동분향소의 운영을 종료했다.

광주시에 또 누리집(홈페이지)에 개설한 '온라인 분향소'도 함께 종료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는 5·18민주광장에 마련돼 2024년 12월30일부터 지난 1월4일까지 운영했으며, 1월5일부터는 인근 전일빌딩245 1층 실내로 옮겨 48일동안 운영했다. 2곳의 합동분향소에는 총 2만9027명의 참배객들이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온라인 분향소에는 7094명이 헌화하고, 4375명이 추모글을 남겨 희생자들을 기렸다.

광주시에 이날 합동분향소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합동참배를 거행했다. 합동참배에는 강기정 시장, 박한신 유가족협의

회 대표와 유가족들,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공직자 등이 참석했다.

박한신 유가족 대표는 "유가족들은 서로를 돌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며 "분향소를 운영하고 도움 주신 공직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유가족들과 함께 분향소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다"며 "아픔을 함께 나눠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참사 원인규명, 유가족 심리치유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지금까지 마음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합동분향소 운영에 함께한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도 감사를 전했다.

광주시에 앞으로 유가족·시민 등 피해자들의 심리 안정·치유를 위한 자조공간이자 일상회복 지원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1229 마음센터'를 건립, 종합적 재난 심리 지원이 가능한 종합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병하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1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직·간접적인 대미수출 감소 등 도에 미치는 위기 진단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주) 순천공장, 광양알루미늄(주) 기업대표 및 도상공회, 한국은행지역본부, KOTRA광주전남본부 등의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주력산업 보호·경쟁력 제고 머리 맞대

유관기관·기업 등 참여방안 모색 트럼프 관세정책 비상 대책 회의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정부 건의

전남도는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 따른 지역 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주재로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비상경제 대책 회의'를 지난 21일 개최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도내 상공회의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목포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KOTRA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남연구원, 전남TP 등 경제 관련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대응 TF 위원 20명이 참석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관세부과로 직·간접적인 대미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주)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주)순천공장 △광양알루미늄(주) △삼미메탈 △아시아T&C △㈜세아제강 순천공장 대표 및 관계자들도 참여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실제 트럼프 정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데 이어, 18일(현지시간) 자동차에 대해서도 25%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의 수출량 감소가 자동차 강판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주)순천공장 등 철강 기업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분야, 농축산 및 수산 분야 등 산업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물류비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 지원 △코로나 협력·재외동포청 연계 대체시장 발굴 △수출보험료 한도 상향(기업당 300만원 → 500만원) △중국산 저가 수입철강 공급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 등과 기업 애로사항으로 △송배전 전력 계통 연계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이 중점 논의됐다.

전남도는 회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 산업에 대한 단기·중장기적 대책을 추진하며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우리는 IMF 등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발전해 온 국민으로 현장 목소리를 정부와 도 대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여수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체 지원 방안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